

May 17, 2017

Americas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 GM카놀라 승인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연장

미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USDA APHIS)는 일반대중들에게 통보하였던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APHIS는 바이엘(Bayer CropScience LP.)의 요청에 따라 InVigor®MS8(이하 MS8) 카놀라 승인에 대한 이전의 결정에 새로 개발한 다른 카놀라 이벤트 MS11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4월 12일 게시된 고지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연장되며 제출된 모든 의견들은 2017년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검토가 끝날 것이다.

MS11 카놀라는 MS8 카놀라와 똑같은 작용 기작을 사용하여 웅성불임과 글루포시네이트-암모니움 제초제에 대한 내성 등 두가지 특성을 가지도록 유전자 변형되었다. 이번 의견수렴기간에 대한 연장 조치는 이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평가 초안, 예비규제 결정, 환경에 악영향이 없다는 확인, 그리고 승인 신청 결정을 위한 식물해충 위해성평가 등과 관련된 의견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SDA APHIS BRS Federal Register Notices](#)
연방 고지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vailable here](#)

Americas

오바마, 농업생명공학의 혜택에 대해 이야기 하다

“진실은 인간이 유전적 변형에 항상 관여해오고 있다....우리가 현재 먹는 쌀이나

옥수수 그리고 밀은 1000년 전의 옥수수, 쌀 그리고 밀의 생김새와 많이 다르다.”고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2017년 5월 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Seeds & Chips 세계 식량혁신 정상회의 (Global Food Innovation Summit) 연설에서 말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식품에서 유전자변형과 유전자편집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논의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는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논쟁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내가 한 접근 방식은 과학이 기후 변화에 관한 나의 정책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나는 과학이 식량 생산과 신기술에 대한 나의 태도들을 결정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들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 규모의 농민들은 많은 추가비용 없이 그들에게 더 나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만족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바마 전 대통령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연설 동영상을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enetic Literacy Project](#)

Asia and the Pacific

인도 농민들, 자국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 면화를 곧 도입할 것으로 보여

인도에서 개발한 3종의 유전자변형(Bt) 면화 종자가 처음으로 인도에 상업화 출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농업연구의회(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에서 면화 종자 PAU-1, RS 2013, 그리고 F-1861의 상업적 출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종자들은 다음 파종시기에 농민들에 의해 재사용될 수 있으며, 시중에 나와있는 현재의 BT 면화 품종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자의 평균 수확량은 헥타르당 500kg으로 추산되며 이는 일반 면화 종자의 수확량 보다 높으며 기존의 BT면화 종자의 평균 수확량과 비슷하다.

“우리는 인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BT면화의 상업적 출시를 환영하지만 이것이 기존의 BG-2 품종과 같은 결과를 보일지는 우선 지켜봐야 한다. 만약 현재 종자들 보다 가격이 크게 낮다면 주로 솜벌레(pink bollworm)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의 농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도국립종자협회의 임원 이사 Kalyan Goswami가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enetic Literacy Project](#)

Europe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GM감자 포장시험 승인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Norwich Research Park 에 위치한 지정된 포장시험장에서 GM감자의 포장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세인스 버리 연구실(TSL)의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포장시험은 마름병과 선충에 저항성을 가지며, 상처에 멍이 덜 들고 또 고 온 조리시 아크릴아마이드가 적게 생성되는 Maris Piper 감자를 개발하기 위한 세인스버리 연구실(TSL)의 감자 협력 프로젝트(TSL's Potato Partnership Project)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의 BioPatoatoes와 미국의 Simplot 의 추가 지원으로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연구협의회(BBSRC)가 자금을 지원했다.

세인스버리 연구실 책임자인 Jonathan Jones 교수는 "나는 표준 포장 조건에서 감자작물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시험을 승인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번에 시험할 저항성 유전자들의 조합이 이전에 포장 시험했던 단일 유전자보다 후기 마름병을 극복하기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재배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수가 없다." 라고 말했다.

Defra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re](#)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ere](#) TSL website

Document Reminders

2016 생명공학작물 요약

ISAAA는 2016 글로벌 생명공학작물 상용화 현황(ISAAA Brief 52)를 발표했다. "Biotech Crop Highlights in 2016"이란 제목의 포켓 K 인쇄본은 전세계 생명공학작물의 재배지역(1996-2016) 현황,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명공학작물 채택현황, 26개국의 생명공학작물의 분포 및 글로벌 혜택을 포함한 여러 주요 항목들을 요약정리했다.

포켓 K를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